

반려동물 시대의 그늘...사육농장 식용개의 비참한 삶

개 50여 마리, 비좁은 철장 간혀 음식물쓰레기...악취 진동

광주 북구 농장, 2017년 8월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벌금형

“개고기 수요가 줄지 않고 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도축은 계속되는 거죠.”

지난 15일 오전 광주 북구 도심 속 한 개 사육농장. 숲이 우거진 골목을 100m가량 걸어 들어가자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농장 약 132㎡ (40평) 크기의 마당엔 철장 30여개가 3줄로 정렬해 있었다.

바닥으로부터 50cm 가량 띄워져 있는 철장은 녹이 슬었고, 털과 배변 등이 뒤엉킨 가운데 개 50여 마리가 갇혀져 있었다.

철장 바닥엔 오물이 청소되지 않은 채 오랜기간 방치돼 이끼가 켜졌다. 밤그릇엔 곰팡이 핀 음식물쓰레기가 담겨 있었고, 주변엔 파리과 벌레가

짖었다.

마당 한 켠 10000 용량 배식통엔 가족에 먹일 음식물 쓰레기가 마구 뒤섞여 있었고, 근처에 다가서자마자 코를 움켜쥔 만큼 악취가 났다.

간헐 개들은 겁을 먹은 채 눈치를 보거나 피부병으로 인해 털이 한 움큼씩 빠진 채 철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한 백구는 1평 남짓한 좁은 철장 속에서 낳은 지 2-3개월 된 새끼들을 돌보고 있었다.

도살 위기에 놓인 또다른 대형견들도 사람이 다가오니 꼬리를 치며 반겼다.

비좁은 철장 안에는 개 뿐만 아니라 돼지 5마리·염소 10여 마리 등 다른 가족들도 갇혀 있었다.

간헐 개들은 개 장수로부터 kg당

4000~5000원씩 값이 매겨져 농장으로 팔려왔다.

마당 나무 곳곳엔 도축 흔적으로 보여지는 개털이 붙어 있었다. 전기 충격을 주거나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도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 농장 주인 A씨는 “대형견은 개 장수로부터 15~20만 원에 구매한다. 올해 여름 성수기 기준, 하루 평균 개 10마리 정도가 도살됐다. 도살된 개는 마진 10~15만 원 가량을 남기고 보신탄 음식점에 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엔 보신탄 음식점 몇 곳이 문을 닫아 개 도축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개농장 철거 문제에 대해선 “개 농장 운영으로 30여년 간 생계를 이어

왔기 때문에 철거가 어렵다. 철거시 보상이나 이주 대책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답했다.

관할 자치단체인 북구는 지난 2017년 8월 해당 농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 도축을 일삼는다’는 내용을 확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후 농장주는 벌금 300만 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개 농장에 갇혀 사육 중이던 개 35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해당 농장에선 여전히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개 도축·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북구 관계자는 “동물 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 고발만 할 수 있다. 사육 환경 위생, 도축법 적정 여부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데, 도축 시 신고 가족 범위에 개는 빠져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15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개농장에서 개들이 오물·음식물쓰레기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다. (사진=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제공)

“첫 적발 이후 매년 2차례 이상 해당 농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했다.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임용관 대표는 17일 “발이 푹푹 빠지는 좁은 뜰장에서 자란 개는 상한 음식을 먹고 치료도 못받은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축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

했다.

이어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식용·도살 등 관련 규제를 비껴간다. 보양식으로 개고기를 찾는 수요가 줄지 않고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개 사육농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갑자기 겨울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 한파 특보가 발효된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내일 전두환 항소심...헬기 사격 탄흔 전일빌딩 증거조사

다음 기일 결심공판 전망, 연내 재판 마무리 가능성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6번째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가 조만간 증거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혀 항소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인 전망이 나온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씨에 대한 항소심 6번째 공판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선고 전까지 법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번 공판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1980년 5월 21일 광주로 출동한 헬기 부대·기종·총기 등을 특정키로 했다.

또 전씨 측 요청에 따라 헬기 사격 탄흔이 남겨진 전일빌딩에 대한 입체(3D) 영상 검증 내용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6번째 공판에서 증거 조

사를 마치고 그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종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약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유나기자

합평서 화물차 전신주 들이받아 2명 부상

경찰·소방·한전 등 크레인 동원해 구조

합평에서 1.5t 화물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 17일 오전 9시43분께 합평군 나산

면 국도에서 이모(79)씨가 운전하던 1.5t 화물차가 도로가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와 동승자

박모(74·여)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후 119와 소방, 한국전력 공사 관계자들이 크레인을 동원해 부상자를 구조했다. 합평=김광춘기자

이별 통보한 여성 집 찾아가 흉기 난동 50대 2심서 감형

전 동거녀 가족 3명에게 흉기 휘둘러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보호관찰 3년(피해자 접근 금지 준수) 명령은 유지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